

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919억 투입

무상 급식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 등 지원 총 학생 1식 당 평균 3천286원...전국 평균 웃돌아

전남도가 도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대안학교 등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 919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분야 별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특수·인가 대안학교 2천413개교(24만4천명)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320억원 ▲어린이집·유치원·초·중·대안학교 2천261개교(19만7

천명) 비유전자변형(Non-GMO) 식재료 차액 35억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초·중·인가 대안학교 717개교(13만9천명)를 대상으로 한 학교 무상급식비 564억원은 전남도교육청을 통해 투입한다.

이 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및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차액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외에 전남도가 자체 추진하는 특화 사업이다.

전남도가 조사한 결과, 학령 별 1식당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단가의 경우 초등학생은 2천80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71원이, 중학생은 3천219원으로 123원이, 고등학생은 3천268원으로 139원이 많다.

특히 전남 총 학생 1식 당 평균 지원 단가는 3천286원으로, 전국 평균 지원 단가 2천967원보다도 319원 많았으며 이는 전국 중위권 수준이다.

이 밖에 학교급식 식재료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비유전자변형 가공품 검사비 11억원을 지원해 산지에서 교실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과 별도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18개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일 간식비 9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내 전체 초등학생과 학생 수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위해 우유급식 1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은 "신선 식재료가 많이 나오는 전남은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타 지자체보다 저렴하게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김지사, 민선 8기에도 직무평가 1위

姜시장 6위...주민생활만족도 전남 4위·광주 17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선 7기 시절 줄곧 1위를 기록했던 김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8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 김영록 지사에 대한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71.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70%대 긍정 평가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어 2위 이철우 경북지사 63.5%, 3위 김두겸 울산시장 59.8%, 4위 김관영 전북지사 59.3%, 5위 김동연 경기지사 58.8%, 6위 강기정 광주시장 53.1%, 7위 홍준표 대구시장 54.9% 등의 순이다. 1위부터 7위까지는 전국 평균(53.1%)



김영록 지사 김기정 시장

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다.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서울이 74.5%로 1위에 올랐으며 경기는 72.2%로 2위다. 주민생활 만족도 70%를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과 경기 등 2곳 뿐이었다.

전남은 67.3%로 4위, 광주는 49.7%로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무선 RDD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4%, 표집오차는 전국 ±1.1%p(95% 신뢰수준), 광역시·도별 ±4.4%(95% 신뢰수준)다. /김재정기자

5·18기록관-(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기록물 기증 협약

도서간행물·문서자료 등 149건 윤상원·박관현 열사 수첩·메모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은 9일 "사단법인 들불열사기념사업회와 기록물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진행된 '학술·연구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기록관은 들불열사기념사업회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 총 149건을 기증받았다.

대상 기록물은 5·18민주화운동, 5·18 참여자, 들불야학 관련 내용으로 도서간행물 6건, 문서자료 133건, 박물자료 4건, 사진자료 6건(710컷) 등이다.

특히 이번 기증 기록물 중에는 윤상원 열사 수첩, 박관현 열사 육필 메모, 박용준 열사 일기 등 중요 기록물도 다수 포함됐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2004년 윤상원 열사 생가 화재로 인해 많은 기록물이 멸실되고 남아



5·18기록관과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9일 동구 금남로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기록물 기증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소장·관리중인 5·18민주화운동과 들불야학 관련 내용의 도서간행물 6건, 문서자료 133건, 박물자료 4건, 사진자료 6건(710컷) 등을 기록관에 기증했다. <광주시제공>

있는 기록물도 심각한 훼손이 진행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10일부터 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복원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이들 기록물과 관련된 전

시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박관현 열사 서거 40주기에 협약을 통해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다"며 "기록물을 보존해온 들불열사

기념사업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5·18민주화운동이 기록물을 통해 후대에 더욱 널리 알려지고 민주인권 기록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수도권 출신 지도부, 필승 전략 역행"

비수도권 유일 후보 송갑석 "2·3주차 진전 기대"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1주차 최하위를 기록한 송갑석 후보는 9일 "비수도권의 유일한 후보로 2-3주차에 진전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첫 주의 결과는 많은 실망과 아쉬움을 보여드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3주 차에서 호남의 열망을 다시 한 번 뭉쳐서 보여주시면 수도권 승부, 마지막 전국대의원 선거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호남 정당을 벗어나 친신만고 끝에 지금의 전국 정당이 됐는데 수도권 출신으로 지도부가 구성



송갑석 후보

되는 것은 민주당의 필승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과 지방이 단단하게 연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것이 승리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2주 차 부·울·경과 충청에서 비수도권 이야기로 설득력을 얻고 3주 차 호남, 4주 차 수도권 경선에서 전략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며 "특히 호남 당원들이 많은 공감을 해준다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박선강기자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추진

도, 문화재청 공모 선정...2024년부터 5년간 360억 투입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이 문화재청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근대역사문화공

간 활성화 사업은 근·현대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부터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근·현대기에 형성된 거리와 마을 지구 등을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총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 심사, 현지 조사, 종합 평가 등 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여수시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로 거문도는 섬에 소재한 근대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5년 간 여수 삼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지역 문화를 하나로 묶으면 점점 낙후되고 소멸되는 도시 지역에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내달 8일 공개

광주경실련 "합의서 공개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이 오는 9월8일 공개된다.

9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를 9월8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달 판결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

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단기기자

소중한
내가족일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주세요

잠시 멈춤,
보행자 배려의
시작입니다

후원 |